

李退溪의 經書註解 研究 (一)

—門人에의 答書를 通하여—

慶北大學校 教授 宋 兢 燮

《目 次》	
緒 論	
其一. 金而精에의 答書	6. 心性俱動의 否認
1. 白雲洞規의 再檢討	7. 所以然와 所能然
2. 心이 物을 主宰	8. 心性의 解釋 (一)
3. 敬의 解釋	9. 動處와 動底
4. 性理大全의 精讀	其三
5. 虛의 解釋	10. 心性의 解釋 (二)
其二	11. 心先動說否定

緒 論

李退溪(一五〇~一五七〇)學을 크게 나누면 세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經書의 訓解 둘째 性理學의 理論的 전개 셋째 政治·教育 등 실천분야가 그것이다. 이 세 분야 중 退溪學의 기초가 되는분야는 經書의 註解인 것이다.

經書의 의미는 매우 넓지만 일반적으로는 儒家思想에 속하는 書冊의 총칭을 말한다. 일찌기는 易 書 詩 禮 春秋 등 이른바 五經이라 하였으나 論語 孟子 中庸 大學 등이 四書로 성립되었는데 이를 原典은 時代가 흐름에 따라 解釋상 註를 가하게 되고 또다시 註를 해석하는 疏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經書는 『十三經註疏』와 其他 註解의 방대한 全集이 편찬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儒家의 經書에 대한 解釋學을 經學이라 하거나 經書라든가 經學이라는 成語가 확립된 것은 紀元前 一三五年前 漢武帝때 라고 전해온다. 解釋學이기 때문에 時代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經書는 聖人의 作이라 하여 絶對視 되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經書는 麗末鮮初때 直解, 口訣·懸吐의 방법으로 읽기와 더불어 해석이 행해졌었다. 그러나 字句의 분석이라든가 經文의 전후 貫通에 관한 고찰은 아마 中宗後期에 와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만 經書를 道義의 象徵으로 篤信해 온데는 변함이 없었다.

李退溪의 經書에 대한 註解도 이러한 時代의인 배경이 있겠거니와 本稿에서는 退溪가 註解한 사실만을 풀이하고 고찰하는 데만 그치기로 한다. 退溪의 經書 註解는『語錄解』『四書釋義』같은 單行本도 있지만 거의 전부가 門人들의 質議에 答하는 書翰 속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原典이 대상이 되어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再整理를 요하는 부분이 많다. 退溪文集 중 經書註解는 卷九로 부터 卷三九까지 三一卷에 기술되어 있고 총 九百餘篇에 이른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거듭 續稿를 내서 전량을 고찰할 계획이며 위에선 答金而精부터 고찰하기로 한다.

其一. 金而精에서의 答書

金而精은 學問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여 매우 고심한 듯하다. 길을 얻지 못하여 허물이 많고 병통이 많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退溪에게 지도를 청하였다. 退溪의 가르침인 이 서간은 退溪先生文集(以下文集) 卷三十二에 第3 答書로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1. 白鹿洞規의 再檢討

學問하는데 길을 얻지 못하여 많은 허물과 많은 病痛의 있음을 自叙하고 깊이 自勵하면서 서로 揀治하기를 바랍니다.

退溪는 그곳이 매우 간절하다하고 謙虛하게 받아들였다. 다만 往年에 이미 來求하였으나 얻지 못한 것은 公의 뜻이 篤實하지 못하여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내 自身이 닦은 것이 없기 때문에 公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公은 方向을 바꾸어 다른데서 求하지 않고 또다시 도움이 없음을 구하니 어찌 옛사람이 생각나지 않겠는가 이 그옛사람의 말은「몸은 勤해도 일은 틀려진다.」(身勤而事左)는 말과같지 않겠는가. 아다도 計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감당하지 못하여 答을 할 수 없다면 同志끼리 學問의 切磨之道가 아니겠으므로 나의 분수에 넘치지만 말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公은 스스로 허물을 말하기를

學問이 麤陋하고 생각하는 것이 粗雜하고 行身이 顛倒되고 處事가 지나쳐서 接物에 泛忽하다.

라고 하겠는데 公이 말하는 自身의 다섯가지 病痛은 바로 나도 平素에 깊이 근심하여 바로 잡으려고 한바 라고하고 지금 公이 먼저 말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朱子의 白鹿洞規를 들어 學問의 方法을 論하였다. 白鹿洞規는 白鹿洞書院規로서 朱子가 建

1) 學未得門, 多過多病, 深自鑑責, 欲相揀治.

2) 學術麤陋, 心慮阻雜, 行己顛倒, 處事浮妄, 接物泛忽.

立했던 書院의 規則을 의미한다. 退溪의 생각으로는 이 다섯가지 病痛을 다스리는 法은 이 洞規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洞規의 價値를 설명하였다. 「規」의 가르침은 사람의 떳떳한 道理를 밝히는데 根本을 두고 博學 審問 慎思 明辨을 가지고 窮理하는 要綱으로 삼아 修身하는데서 부터 일을 處理하고 事物에 接하는데 까지 行實을 敦篤히 하는 節目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³⁾ 退溪는 學問이 무엇이라는 定義를 일어주었다. 學問은 思辨하면서 物格하여 至知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할때 理는 밝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思辨」은 생각하여 判別하는 인간의 思惟이며 「物格」은 事物의 理致를 연구하는 것이며 「至知」는 지식이 至極하게 됨을 말한다. 그래서 學術은 精密하게 탐구될 수가 있다.⁴⁾ 「修身」은 忠信, 篤敦을 主로하고 懲窒로 이를 補하여 遷改한다면 行實이 敦篤하지 않음이 없고 心慮가 粗雜에 이르지 아니하고 行身이 顛倒에 이르지 않는다.⁵⁾ 處事는 正義로서 道를 밝게하고 接物은 行恕로써 오히려 篤行이 또 事物에 나타날 것이니 浮妄은 근심할 바가 아니며 謙遜함을 念慮할 바가 아니다.⁶⁾ 退溪는 비록 이런줄을 알았지만 實行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지금부터는 마땅히 朝夕으로 서로 더불어 힘써야 하겠다고 而精을 격려하고 다짐하였다.

2. 心이 物을 主宰

金而精의 두번째의 반성은

움직이던 문득 過失이 생기고 말을 하면 반드시 누우침이 따른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白鹿洞規의 修身項目을 前에 말한 바가 있는데 요는 내가 힘써 行하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金而精의 이와 같은 自省은 朱子의 門人何叔京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叔京은 스스로 粗妄之病이 있다고 하면서 朱子에게 물기를 「하려는 말을 마치기도 前에 벌써 그것이 허물된 말이 있음을 깨달았으며, 하려는 일을 채마치기도 前에 벌써 그것이 허물된 行動이 있음을 깨달았읍니다」하였다. 이에 대한 朱子의 대답은 이런 病痛이 있는 것은 내게 居敬하는 功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物을 主宰하지 못하고 氣가 뜻(志)을 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일 하나만을 主로 하고 둘을 否定한다면 臨事接物할 때에 眞心이 앞에 顯現되어서 卓然히 어지럽힐 수 없다면 또 어찌 이런 病痛이 있는 것이냐?⁷⁾

3) 朱子의 白鹿洞書院建立경위, 院規와 그 意義의 考察은 嶺南大 東洋文化研究所(一九七二年) 刊『東洋文化』第一三輯所收 宋兢燮의 論文「李退溪의 教學思想」참조.

4) 夫學問思辨而物格知至, 則理無不明, 而學術可造於精微矣.

5) 修身主於忠信, 篤敦而補之, 懲窒遷改, 則行無不篤, 而心慮不至於躁雜, 行已不至於顛倒矣.

6) 處事以正義明道, 接物以行恕反己, 則篤行. 又見於事物而浮妄非所憂, 泛忽非所慮.

7) 何叔京問於朱先生, 自謂有躁妄之病曰, 一言未終已覺其有過言, 一事未終已覺其有過行云云. 朱先生答曰, 所以有此病者, 殆居敬之功未至, 故心不能宰物, 氣有以動, 志而然耳. 若使主一不二, 臨事接物之際, 眞心現前, 卓然而不可亂, 則又安有此患哉.

고 하였었다. 그러니 어찌 患이 있을 것인가 金而精이 念慮하는 때는 이 말 이 좋은 敎示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지금 서로가 터붙어서 충분히 第勵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金而精의 세째번의 엄려는

보고, 듣고 말하고 行動하고 말하는 투와 容貌를 法度대로 지키지 못한다.⁸⁾

하는데 있었다. 이말을 들은 退溪는 金而精의 심중은 마치 形體나 그림자가 없고 出入하기를 無時로 하는 것과 같다고 형용하면서 그것을 잡는 도리를 들을려고 하니 이 물음은 매우 절실한 것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退溪는 옛사람들의 故事를 들어 설명한다. 즉 「形體나 그림자가 없는 마음을 가질려고 하면 반드시 그 形容과 그림자가 있어 의지하여 지킬수 있는 곳에서부터 공부를 더한다」⁹⁾라고 설명하고 具體的으로는 顏子의 四勿과 曾子의 三貴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다. 「四勿」이란 孔子가 顏子에게 지킬 것을 가르친 네가지 事項을 말한다. 즉 論語의

禮가 아니거든 보지를 말며, 禮가 아니거든 듣지 말며, 禮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며, 禮가 아니거든 움직이지 말라.

하는 것이며 또 「三貴」는 曾子가 한말로써

君子는 道에 貴한 것이 세가지니 容貌를, 움직이는 데는 暴損을 멀리하며, 顏色을 바로잡는 데는 信에 가까와야 하며, 말(辭氣)을 내는 데는 비루하고 폐려(鄙俚)함을 멀리하여야 한다

고 하였었다. 孔子와 曾子가 이렇게 말하였음으로 朱子가 何叔京에게 답한 글에서 말하기를 「顏子 曾子 以下の 諸賢이라면 모름지기 視聽・言動・容貌・辭氣에 관해 공부를 하여야 할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形體가 없고 作用함이 일정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規矩繩墨으로서 꼭 지켜야 자연히 스스로 內(心) 外(事)가 帖然하게 될것이다.」했는데 規矩繩墨이란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法度를 의미한다. 이것을 지킬때 心 事가 온당하게 될것이다. 이와같은 태도는 일상에 있어서의 工夫에 지극한 要處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살펴본다면 內와 外가 처음부터 서로 分離 된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莊嚴 整頓 齊一 嚴肅하라는 것은 바로 規矩繩墨을 지키려는 마음을 잡는 것이다.¹⁰⁾

라고 하였고 또 朱子가 陳明中에게 回答한 글을 인용한다.

洪範의 五事は 思(생각)를 主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잡는 단계 操存之漸는 반드시 그 可見者로부터 法則(規則)으로 삼으면 지극히 가깝고 명백하여 마음을 지키기 쉽다. 그런 때문에 五事의 순서에서 思가 제일 나중에 있으니 孔子께서 四勿

8) 所云其於視聽 言動 辭氣 容貌上, 患不能以規矩繩墨守之.

9) 問之古人欲存無形影之心, 必自其有形, 影可據守處加工.

10) 若顏. 曾以下, 須就視 聽 言 動 辭氣上, 做工夫. 蓋人心無形, 出入不定, 須就規矩繩墨上守, 便自內外貼然. 此日用功夫, 至要約處於此審之, 則知內外未始相離, 而所謂莊整, 齊肅者正所以存其心也.

에는 思에 미치지 않았으니 이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지키기 쉬운 法則에서 부터 시작하여 不可見하고 잡아낼 수 없는 마음을 養成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오래토록 지속시킨다면 表裏一如가 되니 점차 私意는 용납할 고이 없게 된다.¹¹⁾

고 하였음을 金而精에게 강조하였다. 이렇게 말한다음 退溪自身の 당부를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5個項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에서 보기로 한다.

3. 敬의 解釋

첫째는 顏子 曾子나 朱子를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지금 顏子나 曾子를 법으로 삼고 朱子를 스승으로 삼아서 久遠하게 고찰할 것이다. 內와 外를 분해서 두가지 일로 만들고서 外는 粗淺하여 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 內는 微妙하여 미치기 어려운 工夫라고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는 大學의 定 靜 安 慮에 대해서 이 定 靜 安 慮의 해석을 朱子가 李繼善과의 問答에서 본다면 諸公의 說이 약간 틀린 곳이 없지 않다. 생각하니 異說이 생긴 것은 上記說을 미처 보지 못하고 各者의 의견에 따라 말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自警으로 삼고 감히 義理를 輕說하지 않음이 좋을 것이다. 異說이 생겼다는 것으로 因해서 諸公을 낮추어 보는 것은 不可하다.

세째는 「敬」에 대해서이다. 전날 先賢들이 敬에 대하여 뜻새김을 일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마 各者의 見解에 따라 형용한 것이니 事實과 다른 뜻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而精이 持敬의 工夫를 하려하면서 그 가운데서 自己의 缺點을 是正하려하고 있다. 이것은 顏子 曾子 그리고 朱子의 說에서 自己에게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 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缺點을 是正하는 데는 「敬」이라는 것이 있다. 「敬」은 모든 病弊의 藥이요 그 藥은 한가지 症狀에 한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니 어찌 한가지 缺點에 대한 處方만을 求하려하는 것인가.

또 前三子의 說이 不同하다 하지만 朱子는 일찍이 「實은 오직 하나이다.」(其實只一般)하였고 한가지 工夫를 한다면 나머지 세가지도 모두 그 속에 있다¹²⁾하였고 眞西山도 「三先生의 말을 합하여 用力한 연후에 內外를 서로 기르는 道가 비로소 갖추어 진다」¹³⁾ 하였음을 附記하고 退溪自己의 당부를 論述하였다. 즉 이제 그 첫번째로 손을 대어서 工夫하는 곳을 求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程伊川의 「整齊 嚴肅을 다하고

11) 洪範五事以思爲主。然操爲之漸。必自其可見者而爲之法則。切近明白而易以五事。故五事之次思。最居後。夫子於四勿不及思焉。蓋欲學者循其可見守之法。以養其不可係之心也。至於久而不解則表裏如一。而私意無所容矣。

12) 若從一方入三寸。入處都在這裏。

13) 合三先生之言而用力。然後內外交相養之道。始備。

오래도록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心이 하나이면서 고르고 사특한 마음 아님이 없다.¹⁴⁾ 한 마음이 나를 속이지 않음을 體驗하게 될 것이다. 밖으로 嚴肅하고 中心이 하나이면 「主一無適」이라하고 그러한 마음이 收斂하는데 一物을 不容하니 「常惺惺」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 그 가운데 있으므로 그 條目을 따로 工夫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朱子가 楊子直에게 教諭하기를 「持敬은 多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整齊, 嚴肅, 嚴威, 嚴格, 動容貌, 整思慮, 正衣冠, 尊瞻視 등 數語를 熟味하면서 실제로 努力을 더해 간다면 이것을 直內라하니 主一이라하는 것은 자연히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按排되어 身心은 肅然해져서 表裏는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¹⁵⁾라고 하였다. 朱子가 方耕道등에게 말한 뜻도 역시 이리했으니 어찌 서로 함께 힘쓰지 않겠는가. 이러한 退溪의 한결같은 學問의 자세와 修養의 방법에 대해 金而精은 또 理解에 미친한 잠을 질문하였다. 그것이 빗짜의 항목인데 그것은 「主一」에 관해서였다. 退溪는 다시 설명한다.

「主一」이라는 「一」은 둘로 되지 않고(不二) 섞이지 않는다(不雜)는 一로서 역시 專一이라는 一이며 「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一」일 수 있으면 즉 誠인 것이다. 고로 「中庸」에서는 「一」을 가지고 誠이라 하였었다. 誠字는 오직 「眞實하고 無妄」이라 訓함이 당연하지만 天地의 造化에 있어서는 實理가 되고 人間에 있어서는 實心이 된다. 이러한 訓은 先儒들이 모두 定說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理의 異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誠보다 친절하지 않아 결코 분명한 말이 아니다.

항차 性이라는 것은 人과 物에 있는 理를 가르키는 것이니 역시 誠字와는 가르키는 바가 不同하니 牽引히 하여 合說하면 더욱 어지럽고 험미해져서 결국은 분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런 傾向을 講學에서는 가장 忌避하는 것이다. 金而精의 다섯째 項은 心性和 四端 그리고 七情에 관한 것이었다.

4. 性理大全의 精讀

公이 論한데목은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性即理이며 理와 氣가 합하여 心이 되는 까닭에 心과 性은 先後로 나누어 말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四端과 七情이 한편으로는 理를 主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氣를 主로하여 相對互說한 것은 心性說과는 자연히 같지 않으니 兩說을 함께 설명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 前번의 書信에서 이에 분명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다시 公이 兩說을 同一視하여 말하였으니 이점은 退溪자신의 意思가 어디에 있는지를 把握치 못한 것같다고 지적하였다. 金而精의 여섯번째의 項目은 다시 念慮思志意의 限界였다. 이 限界에 관한 退溪의

14) 整齊・嚴肅爲先, 久而不懈所謂心便一而無非僻之于者.

15) 持敬不必爲言. 但熟味, 整齊・嚴肅・嚴威・嚴格・動容貌・整思慮・正衣冠・尊瞻視等數語而實加工焉, 則所謂直內, 主一自然不待心安排, 而心肅然, 表裏如一矣.

답을 다음에서 보자.

이것들의 限界는 「性理大全」중 여러 선비의 說에서 자세히 論述되어 있다고 하고 다만 깊이 생각하여 여러번 읽으면 그것을 자연히 알수 있게 될것이라고 당부하면서 退溪는 여러 선비의 說을 간추려 論하고 있다. 그중에서 陳安卿說을 보면 「思慮와 念慮등은 다같이 心에 속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해석은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른 書冊을 참고하여 보다 細密하게 나눈다면 「念」字는 『韻會』에서의 「常思」인데 古字에서는 「念」이라고 하게 된다. 頃刻으로 이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念이며 그러므로 一念을 이 잠시 동안을 「念念不忘云云」이라고 하는 것이다.

5. 「虛」의 解釋

「虛」는 韻會에서 「思普所圖曰慮」라고 하였다. 이것은 생각에 도모하는 바가 있는 것을 慮라고 한다는 뜻이다. 思는 韻會에서 念하는 것이라 하겠다. 念은 열고 思는 깊으며 念은 허술하고 思는 꼼꼼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心省하여 通하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事物에 대한 心을 말한다 할 수 있다. 「志」와 「意」에 대해서는 朱子가 「志는 마음이 가는 것인데 한결같이 가는 것이며 意는 志가 경영 왕래하는 것이다」¹⁷⁾ 하였음을 들었다. 退溪는 이 虛・思・念・志・意의 五者是 모두 「心之爲」 즉 마음이 하는 바이니 善으로 또는 惡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여기서 惡을 버리고 善을 좇으려 하면 역시 敬을 主로하는 主敬과 理를 밝게하는 「明理」에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退溪는 金而精에게 지금 日常生活에서 상기 五字의 名과 이치를 찾으려고 한다면 公이 말한 바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먼곳에서 求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反問하고 心은 事物에 따라 나타나는데 생각으로 어찌하여야 할까하는 것은 意요 시시각각에 따라 있는 마음은 念이 된다. 그래서 그로 因해서 圖謀하는 바가 있는 것은 慮요 文字와 義理를 세밀하게 찾아들어 가고 事物에 酬應하여 新舊를 기억하는 것을 思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志・意・思의 세 가지는 더욱 重하다고 강조하였다.

其 二

6. 心性俱動的 否認

金而精의 이 書簡은 明宗 19年甲子(一五六四) 退溪의 64歲때의 것이다. 이때 退溪는 다섯차례 答書를 보냈는데 여기의 서간은 그 가운데의 第三書이다. 이 서간에서

16) 思慮・念慮之類, 皆意之屬, 此說通矣・

17) 志는 心之所之一直底, 意, 又是 志之經營往來底.

보던 金而精을 七個項에 걸쳐 質問을 하였고, 이에 대한 退溪의 答이 기술되어 있으며 答이의 而精에게 주는 글이 別紙로 부기되어 있다. 附記된 글은 學問하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비교적 긴 文章으로 되어 있어 退溪가 門人을 가르치는 教育觀의 일면을 엿볼수 있게 한다. 金而精의 七個項의 質問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一項

心과 性이 함께 動한다고 하지만 動하는 始初는 先後가 있습니다. 이 兩條의 뜻은 動에 는 즉 心과 性이 함께 動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¹⁸⁾

여기서 「兩條」는 「心」과 「性」을 지칭하며 「兩條의 뜻」이라는 而精이 以前에 退溪로부터 받은 바 있는 書簡의 조항을 인용한 것이다. 이 질문에서 엿볼수 있는 而精의 견해는 그 중점이 「心과 性은 함께 動한다」는데 있다. 而精이 그렇게 判斷한데는 전에 본바 있었던 退溪의 글에서 확신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心과 性이 俱動하니 動하는 데는 心이 먼저이나 아니면 性이 먼저이나 하는 先後관계가 자연히 문제되지 않을 수 없어 而精은 이 先後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점에 관해서 退溪는 而精이 前答書에서 설명을 잘못 해석했으며 따라서 心性俱動說을 그릇 理解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점을 이 서간을 통해 세곳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退溪는 而精의 俱動의 誤解를 풀고 先後說을 否定하는 순서로 論한다. 먼저 心과 性의 성격부터 설명하였다.

몇줄의 語意를 詳察하니(而精은)여전히 「心과 性」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하다 性이란 무엇이나 하면 物(有形)로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理인 것이다. 즉 理로서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런데 理로서 性은 마음에 內在하지만 그것이 단독으로 自發하여 自做할 수없으며 그 心을 主宰하거나 運用할 수 있는것은 心에 內在하면서 「心을 기다려」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性이 先動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心은 性(理)에 의해서 動하는 까닭에 心이 先動한다고도 할수 없다.

라고 하였다. 性에 心을 主宰하고 運用할 수 있는 성격을 부여하면서도 心에 의해서 발휘되어지고 心도 또한 그러한 性에 의하지 않고서 발휘될 수 없다는 兩者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하였다.

7. 所以然과 所能然

원래 俱字의 用例는 무엇보다도 「俱」라 한다면 「二物」이 있어서 비로소 俱라는 글자를 쓸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이상 心과 性양자의 관계는 無偏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心과 性은 이미 先後로 나누어 말할 수 없는 것인 즉 어찌 二物이 있어서 함께 俱動한다고 할수 있겠는가 하고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退溪는 두가지 점을 분명히

18) 退溪先生文集(以下文集) 卷二十九 答金而精 來喻曰心性, 雖曰俱動而動之端倪, 似有先動. 又引鄺說云云, 而曰此兩條之意, 動則心・性俱動云耶.

하고 있다. 心과 性은 別個의 존재이다. 그것은 또는 心의 이느 一者가 먼저 움직인다는 이른바 先動說의 否定이고 다른 하나는 「俱動」에 대한 再說明이다. 그 論述을 다음에서 찾아 본다.

退溪는 『孟子』 公孫丑篇上의 四端을 인용하여 孟子가 惻隱이 仁의 端이라고 설명하면서 「惻隱之心・仁之端」이라 했는데 惻隱과 仁의 中間에 心字를 넣어서 兩者를 總括한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惻隱한 마음은 仁의 端」이라고 하게 된다. 이말이 극히 명백하여 疏漏할 데가 없다고 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惻隱과 仁과는 別個이지만 心을 共同의 場으로 하여 兩者가 共在한다. 동시에 거기에는 先과 後로 分할수 없는것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而精의 心과 性에 先動의 인정을 부정하였다.

退溪는 전에 而精에게 「仁之動，即性之所以然也。性之動，即心之所能然也」라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풀이하면 「心이 動하는 것은 곧 性이 그렇게 한(然)까닭(所以)이며 性이 動하는 것은 心이 그렇게 (然) 될수 있는 것이다」로 된다. 더 고찰한다면 心이 動하는 것은 性이 그렇게 하는 까닭이 되며 性이 動한다는 것은 心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이다. 心은 性을 原因으로 하고 性은 心을 통해서 발휘된다는 의미이다. 上記의 「心은 性에 의해서 動하는 까닭에」를 所以然으로 또 「性은 心을 기다려」를 所能然으로 표현한 것이 었다. 다시 정리를 하면 所以然을 그렇게 되는 까닭 所能然을 그렇게 될 수 있는 바로 세길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退溪가 「所以然」과 所能然의 概念을 가지고 心과 性의 성격과 상호관계를 정립한 것은 性理學研究에서 처음이라 할수 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六字說」은 이 때에 비롯되지는 않았다. 여기의 答金而精書는 退溪 64才 즉 明宗 19年 甲子(一五六四年)이므로 그 이전에 이미 「所以然」과 「所能然」의 概念이 사용되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도 退溪哲學의 형성과정을 고찰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질문의 제二項을 보기로 한다.

俱動한다면 兩條(心・性)에 관해서 下誨하시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先後를 나눌 수 없습니까.」 하셨으니 이것을 두 條目의 뜻과 서로 크게 맞지 않습니다.¹⁹⁾

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心・性에 관해서 而精은 退溪로부터 처음이 아니라 그 前에도 問答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

8. 心性의 解釋 (一)

오늘에 와서 사실은 알길이 없지만 而精은 그때의 心性의 설명을 명백히 記憶하고 있어서 지금의 설명으로 미루어보면 서로 달라 矛盾된다고 한듯하다. 그래서 而精은

19) 前者鄙說，謂心之動，即性之所以然也，性之動，即心之所能然也。非謂俱動，即謂心之所能動，實性之所以動云耳。

20) 若以爲俱動云，則兩條間誨曰，然則何以不可分先後耶，與兩條之意，大不相合。

退溪에게 파고들듯 追求해 들어간다. 退溪의 설명은 이러했다.

우선 이 「心・性」에 관해서는 전자의 일이 記憶에 없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나 전자의 설명이 而精의 말대로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다만 어찌하여 先後를 나눌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問題를 提起한 것 뿐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心性의 해석이 그당시 學界에서 일치되지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退溪는 그런데 쓴 「어찌하여 先後를 나누지 못할 것입니까」라는 뜻으로 보았으니 그것은 그릇된 解釋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第二項의 質問에서의 心性의 설명은 매듭지어졌다. 而精이 質問第三項은 「理發而氣隨之」「氣發而理乘之」에 관한 것이었다.

先生이 가르치신 말씀에 「理發而氣隨之하고 氣發而理乘之의 說은 心 안에서 理氣를 나누어 말한 것이니 心한字를 들어 理氣 두가지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 心中이라는 心字와 心한字의 心字는 함께 「方寸」²¹⁾를 가르킨다고하신 것입니까. 心이 先動한다는 心字와 이 두 心字는 같지 않은 것입니까.

退溪는 心字부터 설명한다. 心은 하나뿐이나 心中이라는 心과 心한 字로서의 心과 先動한다는 心이 어찌다를 수가 있겠는가, 두개 세개로 독립된 心이 있지않다. 또 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主로 「方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體와 用은 腔子(뱃속)²²⁾에 가득해서 六合(天地四方)에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眞西山의 說을 인용한다. 그는 「方寸」에 관해서

方寸에 거두어 들인다고 함은 太極이 내몸에 있고 그것이 萬事에 內在하니 그 用이 無窮하다.²³⁾

라고 하였었다. 이와같이 心의 개념을 活看해야하는 것이다. 肉體속의 臟器의 하나로만 心이라고 인정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전에 朱子도 이렇게 心을 活看한 글이 있었다. 즉 黃義剛이 心을 물어 「心이란 한덩어리의 血肉으로서의 心이 아니겠는가」에 답하여 「그것(肉體)이 心이 아니라 心의 神明이 升降하는 집이다」²⁴⁾라고 하였었다. 「心의 神明이 升降」이란 心의 現象을 의미하며 心을 그와 같은 現象의 집으로도 보는 경우가 있었다.

退溪에 있어서 心의 概念은 臟器속의 心즉身體의 일부로서의 心만이 아니라 作用하는 機能을 갖고있는 心으로도 되고 뿐만아니라 物質에 대한 心 즉 精神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而精의 心에 관한 질문은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제四項에서는 理氣와 心의 관계가 된다.

21) 理發氣隨, 氣發理乘之說, 是就心中而分理氣言舉一, 心字而理氣二者, 兼包在這裏·此心中之心字, 與一心字之心字, 並措方寸云耶, 心先動之心字, 與此兩心字不同耶.

22) 「方寸」「腔子」등 心에 관한 問答은 文集卷第十九答黃仲舉 참조.

23) 眞西山所謂敍之方寸, 太極在躬散之萬事, 其用無窮.

24) 朱子之答黃義剛: 心不是這一塊之問. 曰此非心也, 乃心之神明外降之舍.

心 안에서 理와 氣를 分한다 하였으니 心은 理氣를 합한 명칭입니다. 朱子는 말하기를 心은 氣의 精爽이라 하였는데 精爽이라는 것은 그속에 兼包되어 있음을 가르키는 말입니다.²⁵⁾

退溪는 心은 理氣가 합한 것이라고 했다. 이 說은 退溪 자신의 단독설이 아니고 先儒들에 의해서 既存說로 되어있었다. 朱子가 「心은 氣와 精爽」이라고 한 것은 兼包한 속에서의 知覺運用之妙를 指出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氣의 精爽이라한 것이지 理를 否定하고 氣단독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 「心은 理氣의 合」이라는 說은 위에서도 본 바와같이 이 서간에서 처음보는 것은 아니다. 일찌기 明宗 14年己未 退溪 59才때 전개된 奇高峯과의 問答書에 이미 논술했바가 있었다.²⁶⁾

而精은 心과 性 그리고 現象에 관해서 釋然치 못하여 질문은 계속된다. 질문 第五項을 보면

朱子는 「動하는 곳은 心이며 動하는 그것은 性」이라 하였는데 動이라고 한다면 心과 性이 함께 動한다는 動입니다 「動處是心, 動底是性」의 이 두 句를 보면 「動」의 중점은 아랫句에 있는 것같은데 先生(退溪)께서는 動底者는 즉 心의 所以動인 故라고 하였으니 이러하다면 動할 때는 心이 專主로 動하는 것입니다.²⁷⁾

이에대한 退溪는 朱子의 說도 역시 心과 性이 俱動한다고 함이 아니라, 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心이며 그 所以動인 故가 性이라고 하였을 뿐이라 하였다. 上述했듯이 心이란 身體의 臟器속에 존재하는 肉團의인 것이아니라 精神및 作用임을 명백히 했지만 作用으로서의 心이라는 면에서 「心은 動」한다고 하고있다. 그러므로 그 動하게 하는 心을 心되게 하는 것, 즉 主宰및 運用者가 性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관해서 위의 所以然 所能然에서 이미 본바와 같다. 이런 의미에서 所以動之故를 性이라고 하였다.

9. 動處와 動底

이렇게 설명한 退溪는 前日에도 朱子의 「動處是心, 動底是性」을 해석하면서 역시 動하게 하는 것은 곧 「動底即心之所以動之故」라고 하였다. 而精이 「動할때에는 마음이 專主하여 動하는가」고 하였지만 動하게 하는 所以動者는 性이니 心이 어찌 動을 오로지할수 있겠는가 하여 心이 主宰者가 아니라 그것은 性이라고 兩者俱動을 강력히

25) 來喻云, 就心中而分理氣云, 則心者理氣之合名耶. 朱先生曰心者, 氣之精爽, 精爽云者指兼包在這裏云耶.

26) 慶北大退溪研究所刊(一九七五)第三號所收 宋兢燮의 論文「奇高峯의 己未問書考察」참조.

27) ①朱先生言動處, 是心動, 底是性動, 則心性俱動云耶, 以二句觀之, 動之端, 重在下句, 而晦曰動底者, 即心之所以動之故也. 如此則動之時, 心專主動耶.

②「底」의 用法에 대한 「辭海」同字條에 語助辭 同底.

唐韻正「宋人書中凡語助之辭皆作底, 並無的字, 是近代之誤, 今人小的字, 亦當作底.」

新方言釋詞의 「今人言底. 言的, 凡有三義, 在語中者, 的即之字. 在語末者, 若有所指, 如云冷的, 熱的, 的即者字. 若爲詞之必然, 如云我一定要去的, 的即只字, 作底者亦與只近.」을 참조,

否定하고 있다. 而精의 質問은 다시 계속된다. 質問은 다음의 제六項으로 끝맺지만 제六項에서 心性에 관련되는 念・慮・思・意의 개념을 아울러 문의하기에 이른다.

性이 先動한다는 性字는 理를 가르키고 心이 先動한다는 心字는 氣를 말하는 것이라면 理發而氣隨之하고 氣發而理乘之說은 이와같은 것입니까. 念慮思意는 모두 心이 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動할때에 性도 俱動하는 것입니까 心이 專主하여 發하는 것입니까.²⁸⁾

而精의 질문은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退溪는 心과 性은 이미 前後所問的으로 나눌수 없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心이 먼저 動한다(心先動)는 心字가 또 어찌 오로지 氣만 가리켜 말한 것이 겠는가 하고 理를 否定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論理上당연한 귀결이다. 둘째 理發而氣隨之하고 氣發而之乘之說은 위에서 論한 心과 性의 先後를 定하는 問題와는 별개임으로 上述한 第五項의 答을 참조하면 될 것이니 여기서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셋째 念・慮・思・意가 心의 動이라면 動할때 性도 함께 動(俱動)하는가 아니면 心이 動을 專主하는가 하는것도 心과 性의 先後를 論한것을 잘알게되면 自明할 것이니 다시 논술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이 六個項에 걸친 質問에 答한 退溪는 이書翰의 마무리로 金而精에게 약간의 失望을 감추지 못하는 심회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뜨거운 激勵로서 끝을 맺고 있다. 우선 而精의 學問態度的 批判이다.

보낸 글에서 辨詰한 諸說은 원래가 그 詳細한 것을 끝까지 캐어서 알아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意見이 번잡하고 정리가 안된 점으로 보아 일찌기 深思熟考한다면 자연히 풀려서 알수 있는 경지에 이룰수 있었건만 나가려하지 않고 한번 보아서 疑心이 있으면 그만 질문거리로 만들어 온 것 같다. 이렇게 思索이 不足함을 나무랐다. 또 質問의 내용에 있어서도 他說을 많이 旁引하여 同異를 비교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自晦의 弊를 면치 못했다고 논하고 「谷騰霧反以自晦」라는 글짜가 안개를 피어 올려 스스로 어둡게 만든다는 옛말과 흡사하다고 했다.

退溪는 전번서간에서 大綱의 뜻을 이미 설명한것 같은데 자못 표현하는 바가 이러하니 지금 다시 설명해 준다하더라도 반드시 能信而無疑하지는 않을것 같다고 念慮한다. 退溪는 만일 이번에도 懷疑가 풀리지 않으면 朱子語類第五卷에 劉履之가 心・性의 別을 질문한데 대한 答의 條目을 찾아읽고 그런언후에 다시 退溪自身の 說을 본다면 이해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語類를 읽는 態度에 대해 潛心熟玩하여 오래도록 계속하면 心性의 概念을 洞見할 것이라고 添言하고 있다. 이렇게 敎示해 놓고도 잊을수 없는 일이 생각났었다. 退溪는 이것을 아울러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것이다. 일찌기 朱子가 林擇之에게 答한 글을 보니 潘端叔, 恭叔등 여러 사

28) 來諭之且以性先動之性, 指理而言. 心先動之心字, 指氣而言, 則理發氣隨, 氣發理乘之說, 猶是同耶. 念・思・慮・意皆心之動云, 則動時性亦俱動耶, 心專主發耶.

람들이 學問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弊端이 있었다. 그것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前後 두 項으로 되어 있다. 이 段을 朱子는 이렇게 論하였다. 즉,

그 間에 論한 操存・涵養을 先後로 分別할려는 생각은 벌써 緊要하지 않는데 元禮에서 갑자기 一句가 만들어져 나왔다. 그것을 「心有未嘗放」이라는 것이다. 이 한 句가 만들어져나 오고서부터 그로 말미암아 數 많은 細目이 생겨났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그것의 이해에苦心하게 되었다. 이 「心有未嘗放」이란 句가 일상생활에서 修身하는데 대단히 金요함이 있다는 것인가.²⁹⁾

하였고 또 朱子는

敬으로서 內를 바르게 하는 것이 初學者의 急務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그대(林擇之)가 말한바와 같다. 그런데 敬으로서 直內가 初學者의 急務라고 하는 일은 統體와 操存을 兩段으로 만들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³⁰⁾

라고하였다. 統體란 大綱으로서 基本的인 것이요, 操存은 實踐的인 것으로, 생활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 退溪는 지금 이 몇가지 說을 가지고 본다면 「心有未嘗放」이라는 論은 참으로 그릇된 것이며 金요함이없다고 하여 朱子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操存 涵養같은 것은 爲學에 요긴한 工夫인데도 朱子의 戒와 같은 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退溪는 眞知와 實踐으로서 일로 삼지 않고 한갓 가려서 先後로 구별하여 즉 價値의 輕重을 정하려고 하는 論理에만 沒頭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가답에 金而精이 지금 心이 先動하느니 性이 先動하느니 하는 주장은 操存 涵養의 노력에 비한다면 더욱 金요하지 않으니 굳이 고집하면서 先後로 나눌려고 하는가. 이것은 閑暇한 爭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退溪의 생각으로는 이와같은 煩雜한 辨論은 차치하고 오직 敬으로서 直內함을 第一義로 삼고 統體와 操存이 兩斷되지 않음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를 體驗한다면 여기에 비로소 實用的인 功處가 있을 것이고 발을 땅에 디디어 점차로 進步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用力이 久積에 이르면 마침내 心性動靜說은 辨論을 기다리지 않고 자명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

其 三

10. 心性의 解釋 (二)

心과 性의 關係定立의 두번째 노력은 許草堂과 李一齋가 토론한 그 내용을 批判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 토론은 文集第二十九卷에 答金而精第十二書로 수록되어

29) 其間所論, 操存・涵養若要分別先後, 已是無緊要, 而元禮忽然生出一句, 心有未嘗放者. 遂就此上生出無根枝葉, 不知今苦苦理會得此一句, 有甚緊切日用爲己功夫處耶.

30) 又答書曰, 敬以直內爲初學之急務, 誠如所論此事統體・操存不作兩段, 日用間便覺得力.

있으며 明宗 19年甲子(一五六四年) 退溪의 64才때 었다. 이미 위에서 考察한 바 있는 「心 性」의 書簡과 같은 해의 일이나 本篇이 뒤에 있었던 서간으로 생각된다. 文集에서도 甲子年條의 제끝에 수록되어 있는데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草堂이 一齋에게 提起한 問題의 핵심은 「性이 先動하느냐, 心이 先動하느냐」에 있었다. 이 문제는 前記 서간을 고찰한데서 이미 結論이 난 것이었지만 退溪의 이에 관한 說은 확실히하는데서 다시 한번 고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런데 본편에서는 三學者의 說이 등장하는데 친번제의 문의자가 草堂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一齋가 하였으며 이 두 學者의 問答에 介入한 이가 金而精이었다. 而精은 이것을 정리하여 退溪에게 提示하여 그 妥當與否를 물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而精의 說을 알게 되는 동시에 草堂과 一齋의 學說도 片鱗이 나마 이 글을 통해서 알수있게 된다. 또 三學者의 설을 반박하므로써 전개되는 내용을 가지고 退溪說을 또다시 窺知할수 있게 된다. 먼저 一齋의 說을 보기로 한다.

李一齋의 說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心先動說이었다. 「性이 先動하느냐 心이 先動하느냐」에 대해서 一齋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첫째 心性과 理氣는 同一한 概念인데 각기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그런데 옛날 學者들이 「心・性」과 「理・氣」가 동일개념인데도 無關係하다고 보고 분리시켜 「心・性」에 한해서 舉論하였기 때문에 異論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³¹⁾ 一齋는 序論格으로 史的인 경위를 簡要하게 논한 다음 자기의 해석을 논술한다. 一齋는 本體面으로부터 논한다면 理가 氣보다 앞서는 것이며 用功(作用)面으로부터 논한다면 氣가 理보다 앞서는 것이다.³²⁾ 라고 하였다. 여기서 알수있는 것은 一齋의 理氣關係說이다. 그는 理와 氣는 同時共存하는 것이 아니라 理와 氣는 항상 先後關係에 있는 것이며 그 先後관계가 本體面과 用功面에서 각각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論理를 가지고 心과 性도 그와 똑같이 先後관계에 있음을 명백히 한다. 계속되는 一齋의 논술을 보기로 한다.

宋麟壽・李彦迪의 說은 생각하니 반드시 혼동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先後之分을 모르게 하였으니 學問을 하는데 있어서 精密치 못하다는 폐단을 면치 못할 것이다.³³⁾

宋麟壽의 號는 眉叟이며 李彦迪의 號는 晦齋이다. 一齋는 自說이 이 두분과 다른을 明示하고 있는데 그것은 理氣를 先後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反證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마 理氣는 同時共存한다고 함은 잘못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여기서 一齋가 말한 不精의 의미는 그러한 뜻일 것이다. 이리하여 一齋는 心・性은 先後로 動靜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動靜이 先後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外物에 의해서

31) 退溪先生文集第二十九卷 答金而精：許草堂問，性先動心先動。一齋翁答曰，心性與理氣渾是一物，而古人爲學者，或分而言之，或先後言之。

32) 蓋自本體以論之，理先於氣。自用功以論之，氣先於理。

33) 宋麟壽，李彦迪之說，想必因此而混言，使人莫知先後之分，其爲學問未免擇焉而不精之病耳。

당연히 心이 먼저 動한다³⁴⁾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外界의 事物이 感官을 통해서 마음에 미치게 되면 觀念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논리는 外界의 사물과 心の 現象과는 因果必然의인 관계라고 해석된다. 一齋는 이와같은 自說을 朱子說에서 더욱 확신을 얻은 듯하다. 一齋가 인용한 朱子說은 「四端隨感而見」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四端은 느낌을 따라 나타난다」로 풀이된다. 四端 즉 惻隱之心이나 辭讓之心 같은 순수한 마음은 안에서 스스로 內省에서 일어 나는 것 보다는도 外來사물의 자극으로 感覺의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句에 대한 당시 「感而見」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러했다.

感者，自外而動於內也。見者，自內而形於外也。

「感」은 밖으로부터 와서 안에서 動하는 것이며 「見」은 안으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연히 感한 다음에 見이 있게 되어 感이先이고 見이 後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을 一齋는 다시 註하여

感者，心感也。見者，性發也。

라고 하였었다. 「感」은 心の 느낌이며 즉 움직임이며 「見」은 性이 나타남(發)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앞의 感先見後되로 心先性後가 되지않을 수 없다. 결국 心先動說이 이렇게 해서 성립된 것인데 생각하면 朱子의 「四端隨感而見」註와 다시 疏와 같은 註가 一齋에 의해서 행해 졌다고 할수있다. 이 說을 論據로하여 一齋는 古今의 學者들이 이이치에 통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性이 오히려 心보다 先動한다고 믿고 性發로서 精이라하고 心發로서 意가된다고 주장하는데 躊躇하지 않으니 심한 誤謬를 범하고 있다고 논하였다.³⁵⁾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一齋는 心과 性을 先後關係로 보고 心先動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一齋의 心先動說에 대해 退溪는 그것은 前後가 矛盾된다고 反駁하였다. 다음에서 退溪의 반박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1. 心先動說否定

退溪가 전개시킨 반박 내용은 모두 三個項으로 나누어진다. ①退溪는 理와 氣가 혼연한 一物이나 아니냐의 是非는 이미 先儒들에 의하여 說定되어 있다고 하여 論難할 여지가 없어서 再舉論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②그러나 一齋가 스스로 「一物」이라 해 놓고 뒤에 와서 「心先動」으로 論斷하였으니 自家撞着이라고 하였다. 이미 「一物」이

34) 以心性動靜之先後論之，外物來心固先動矣。

35) 由此而觀之，心先動明矣。古今學者不達此理，或謂性先動於心，此扭於以性發而爲情，心發而爲意，爲主而差云云，

라고 한 이상 무엇이 먼저 動한다는 말인가 하고 전후가 상반된다고 지적하였다.³⁶⁾ 이렇게 논평한다음에 구체적으로 矛盾點을 들고 있다.

③ 感者, 心感也. 見者, 性發也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논한다면 心과 性이 相對的이 되니 만큼 「二物」이 되는 것이며 感發할때 心은 당연히 先動한다면 性은 後發이 당연하다. 그러하다면 이가운데 先後라는 글字가 용납되지 않음이 또한 명백하다. 이러한대로 一齋가 論論함이 그와 같으니 疑惑만이 더욱 滋心하게 된다.³⁷⁾

이렇게 세가지 矛盾點을 던 退溪는 反駁의 論證으로 자신도 朱子說을 인용한다. 그 朱子說은 이러하다. 動處是心, 動底是性 「動하는 곳은 心이며 動함(動底)는 性」이라고 해석되는데 「處」와 「底」의 두 字를 詳考하면 그러한을 알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⁸⁾ 朱子의 이 句를 退溪는 「夫心之所能動, 實性之所以動也」라고 註하였다. 즉 「心之所能動」은 「動處」이며 「性之所以動」은 「動底」라고 하였는데, 心이 動할수 있는 곳은 실은 性에 動하러하는 所以「까닭」이 있다고 풀이된다. 더 줄여 보면 所能動은 心이며 所以動은 性으로 된다. 心의 所能動은 性이 所以動이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心은 스스로 動할수가 없으니 만큼 여기에 動하게 해주는者が 있어야한다. 그것이 性인 것이다. 그래서 退溪는 心先動說은 不可하다고 결론짓는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心은 所能動者이며 性은 所以動者라고 하는 것은 退溪에 의한 새로운 定義이지만 心을 動할 수 있는 곳ियो, 性은 動하게하는 것이라는 이 論理로 본다면 動하게 하는 者와 動하는者 사이에 先動이나 後動이나의 문제가 介在될수 없고 오직 表裏一體의 同時共在의 관계라고 하게되는 것이다. 心先動을 否定함은 물론ियो 性先動도 꼭 같이 부정이된다. 退溪는 이러한 自說을 植物의 生長을 例로들어 비유한다.

穀植의 種子는 生處가 곧 穀이며 生함(生底) 즉 生育은 그 속인것과 같다.³⁹⁾

라고 하였는데 生處와 生底(生育)은 분리될수 없고 동시에 先도 後도 없는 同時現象일 뿐이라고 해석된다. 退溪는 다시 一齋說을 비판한다. 先儒들의 心, 性의 動處를 논한 것을 겨우 先後로 分하는데 멈추었으니 그는 南宋의 學(朱子學)을 같이 연구하였지만 그러나 정밀치 못하였다. 그뿐아니라 인용한 朱子說이 도리어 틀렸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⁴⁰⁾ 결론으로 一齋說은 다른說에 비해 細密하기는 하지만 先과後로 나눌수 없다는 論理를 看取하지 못한데서 온 소치라고하였다. 退溪는 宋眉叟와 李晦齋의 說에 대해서 이렇게 논급하였는데, 다같이 정밀하지 못한

36) 但先段言渾是一物, 後段言心先動. 既曰一物則何者先動乎.

37) 似此言之二, 若心性相對而爲二物者也. 感發之際, 心固先動而性後發乎. 這裏不容其先後字明矣. 而論論如此感滋甚焉.

38) 「底」의 用法에 관해서는 上記註 27 참조.

39) 譬以穀種生處, 便是穀生底, 却是那裏而些子, 先儒論心性動處, 不過止是而已.

(40) 一齋深攻宋季之不精, 而亦未至所引朱說反異何如.

점이 있다고 하면서 眉叟는 「性先發」晦齋는 「性或先發 或後發」이라 했는데 二公이 그와같이 주장하게 된것은 아마도 朱子說 가운데의 「處」와 「底의」 두字를 자세히 새기지 못한데 그까닭이 있다고 하였다.⁴¹⁾

(41) 鄙說正是如所論，一齋所論 比他說稍細，然其不可分先後處，他未能見破耳。